

SK케미칼 안전의 시작에 안전관리당직제가 있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SK케미칼은 친환경화학제품 개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SK케미칼 곳곳에 묻어나는 가운데,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무재해를 이어가는 수원공장을 찾았다. 이 곳에서는 안전점검의 생활화에 안전관리당직제가 있었다.

1. 안전관리당직제 도입 배경

IMF 이전 SK케미칼 수원공장의 안전환경팀은 22명이 안전환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IMF로 인한 물리적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1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력 감소로 SK케미칼 수원공장은 원활한 현장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인력의 활용방안이 대두된다. 이때 안전환경팀 장승식 과장이 제안한 “안전관리당직제” 운용을 하게 되었다.

2. 안전관리당직제의 개요

안전관리당직제는 2000년 5월에 처음 시작하여 5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SK케미칼 수원공장의 대표적인 안전활동 중 하나이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안전관리당직제 운용은 2002년 3월까지 전공장(연구소포함) 과장 및 담당사원(150여명)이 매일 2인1조, 3개조가 SK케미칼 수원공장 A, B, C지역에 대해 자율점검을 시행하여 오다 개정보완하면서 현장 Line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구실 직원을 제외하고 공장 Line 주임 이상 직원 39명을 정예 요원으로 격일을 주기로 3개 지역에 대해 현장 순찰을 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3. 시행방법

A, B, C지역별 2인 1조가 되어 월, 수, 금요일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현장순찰이 이루어진다. 점검사항은 안전환경팀에 신청해온 해당되는 날의 유해위험작업 및 공사 진행사항과, 현장 곳곳의 정리정돈 등 안전의 기초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고 Check 한다. 이와 함께 SK케미칼 수원공장에서 정한 안전작업수칙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수원공장 인근은 많은 아파트와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문닫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당일 현장 순찰에서 도출된 안전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환경팀에 보고되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4. 안전관리당직제도 도입 이후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일년 동안 회사에서는 수많은 안전활동들이 계획 수립되어 시행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보다 지속성을 상실하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로자의 참여도 없이는 성공적인 안전활동이 될 수 없는 안전관리당직제와 같은 것은 사장되기가 그 만큼 쉽다.

그러나 이 곳 SK케미칼 수원공장은 현재 5년이 지나도록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힘을 들지 모르나 안전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정예 멤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당직제를 이끌고 있다.

처음부터 참여도가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참여하는 직원을 공개하고 칭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직원들이 빨리 적응하고 참여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장승식 안전환경팀 과장은 말한다.


이는 과거 재해가 종종 발생했던 때와 달리 본 제도를 운용하고 난 뒤부터 수원공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얼마전 무재해 600만시간을 돌파했다는 것에서도 이 곳 수원공장 안전관리의 Key 역할을 안전관리당직제가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5. 맺음말

회사의 안전관리제도는 현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직장분위기에도 함께 바꿔준다. 정량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줄 수는 없어도 이와 관련한 파급효과는 수치로 정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오늘 SK케미칼 수원공장의 안전관리당직제는 무재해라는 그간 성과로도 성공적인 안전활동임을 말해주지만, 눈에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큰 것이 있



다. 해당 당직자가 타공정, 타Line, 타사업장을 순회점검 하면서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직장 동료를 알게되고, 상호 정보교류 및 자체 벤치마킹은 물론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이와 같이 안전활동이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는 SK케미칼 수원공장은 성숙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지속성 있는 다양한 안전활동으로 인간중심의 SK케미칼을 만들어 간다. 

〈최종덕 기자〉